LSR시장 선두다툼“ 후끈 ”

Bayer · 한국신에츠실리콘 200억원시장 선점경쟁 치열

실리콘제품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해 잠재시장 가능성이 큰 액상실리콘고무(LSR) 시장을 놓고 실리콘기업들의 선점 경쟁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장규모가 150톤으로 추정되는 액상실리콘고무 시장에서 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신에츠실리콘과 32%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Bayer과의 시장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에 Waker실리콘도 그동안의 대리점체계를 청산하고 단독법인을 설립,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실리콘고무 수입현황

(단위 : M/T, 1000달러,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수 량	4,358	5,331	6,636	7,925
금 액	23	28	34	41
증 감 률	53.9	22.3	24.5	19.4

국내에서는 액상실리콘고무의 주용도가 우유병젖꼭지로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유병젖꼭지를 생산하는 사출기중 일본의 마쓰시다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신에츠실리콘의 액상고무의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신에츠가 당분간은 1위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액상실리콘고무는 내열성, 전기적 특성, 내약품성, 내후성이 요구되는 플러그 · 커넥터 · 패킹류 등에 널리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량의 재료로도 우수한 성형품을 얻을 수 있으며 용매로 희석할 필요가 없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만은 우유병젖꼭지용 외에도 컴퓨터 Key Pad의 생산에 액상실리콘고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물안경의 제작에도 액상실리콘고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액상실리콘고무도 그 용도가 우유병젖꼭지용에서 벗어나 산업용제품으로의 진출이 기대된다.

그러나 액상실리콘고무의 갑작스런 수요신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아직까지 액상실리콘고무의 가격이 일반실리콘고무에 비해 2배이상 비싸고 이를 성형가공하는 시설도 고가이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1995/3/20>